

여야 대선 후보, 광주 및 광주-전남 공동 공약 점검

## 광주 그랜드 비전 없고 대부분 현안 사업 나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광주 공약과 광주·전남 공동 공약을 내놓았지만, 광주 미래를 위한 그랜드 비전은 없고 대부분 지역 현안사업이거나 일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여야의 광주지역 대선 공약 가운데 일부는 구체적 추진 시기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당선 이후 추진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조만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발표될 것으로 보며 전남도가 요구하는 공약과 전남 미래발전전략을 담보하는 공약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두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이나 광주-전남 공동공약 중 일부는 상당수가 엇비슷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광주공약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적극 지원 ▲인공지능(AI) 특화 대표 기업도시 육성 ▲클러스터 조성 및 인재 양성을 통한 모빌리티산업 지원 ▲광주역-전남대 일대 '스타트업 밸리' 구축 ▲이동권 문제 해소를 위한 '그린수소트램(친환경 노면열차)' 구상 지원 ▲문화도시 육성 등을 공약했다. 그리고 광주 송정역과 무안공항, 광양항 등 철도와 공항, 항만을 잇는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추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광주-전남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의 공동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은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원구원 설립 등이다.

이 가운데 두 후보가 제시한 광주공항 이전, 인공지능도시, 모빌리티산업 구축 공약은 구체적 내용이 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엇비슷하다는 평가다. 세 가지 공약은 광주시가 민선 7기 주요 현안으로 추진중인 사업인 만큼 색다른 공약이 아닌 지역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광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랜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후보의 경우 3가지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시기 및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국가 지원 공약은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아직 현 정부 내 해결되

지 않은 지역 내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로, '재탕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광주공항 이전 공약에 정작 지역 내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지역 현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 중 서로 차별성이 있으면서 눈에 띄는 공약은 이 후보의 '스타트업 밸리' 구축, 그린수소트램 지원이다. 윤 후보의 공약 중에는 속도 무제한의 독일 아우토반 형태의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이다. 그린수소트램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실현성을 넘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공약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이 후보의 그린수소트램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과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윤 후보가 내놓은 초고속도로 건설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윤 후보가 제시한 '광주-영암 아우토반 건설' (고속도로)에 대해 우선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시행 시기 등을 두고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윤 후보는 임기 시작과 함께 예타 절차를 시작하고, 2027년 임기 말 착공 계획을 밝혔으나, 고속도로 건설 통상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에 우선 반영되어야 하고,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확보 등 일정을 고려하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더라도 일정이 빠듯하다"면서 "무엇보다 전남의 교통량과 인구 등을 감안했을 경우 예타 통과도 가능할지도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전남도에서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구간에 영암이 제외되어 있어 접근성 개선 차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이 좌절되더라도 공론화가 되면서 전남으로선 없던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관계자도 "이 후보의 수소트램, 광주-전남 트라이포트 공약과 윤 후보의 광주~영암 간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 건립 공약의 경우는 광주시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사업은 아니지만, 지역 인프라 구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환영할 만하다"면서 "광주시가 여야에 건의한 대선 공약 사업 중 굵직한 사업을 중심으로 80~85% 정도는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교생 3% 확인 아니면 정상등교 한다 ▶7면

굿모닝 예방 - 봄을 기다리는 나목 ▶18·19면

스노보드 '배후보이' 이상호 골든보이 될까 ▶22면

## 오미크론 확산 '안전지대' 없다

광주·전남, 확진자 연일 2000명대 때와 장소 구분 없이 폭증  
역학조사 '셀프신고' 전환 ... 감염경로 미확인에 대규모 확산



7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설 연휴 인구이동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여파로 역학조사 축소 등 방역 대응역량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규 감염자 역학조사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하면서, 감염 경로 미확인 등에 따른 대규모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방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모임·외출 자제,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역학조사 방식이 감염자 스스로 동선 등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적극적인 자가신고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광주 1209명, 전남 1133명 등 2342명이 신규 확진됐다. 이날도 광주에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40명이 추가 확진 되는 등 지난 4일부터 4일 연속 1000명대를 넘어섰고 있다. 전남도 지난 6일부터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설 연휴 기간 가족·지인 간 접촉 등을 통해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에선 요양 시설·복지시설·병원·제조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백화점과 광주시의회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감염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역학조사 등을 축소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기존 집중 역학조사 방식 대신 밀접 접촉자와 집단시설에 대해서만 동선을 조사하는 등 역학조사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특히 정부에서 이날부터 확진자 스스로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이른바 '셀프 역학조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시스템도 방역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초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방역 역량 등을 고려해 역학조사를 간소화하더라도,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집단거주시설이나 고위험 시설 등에 대해서 기존 역학조사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지역도 설 연휴 이후 상황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전남에선 이날도 도시지역인 목포(150명)·여수(158명)·순천(163명)·나주(155명)·광양(86명)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또 무안 71명, 함평 45명, 영암 43명, 화순 41명, 담양 34명, 고흥 28명, 장성 22명, 장흥·해남·영광 각 19명, 구례 17명, 곡성·진도 각 14명, 완도 13명, 강진 10명, 보성 9명, 신안 3명 등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화정 아이파크 실종자 6명 모두 찾았다

매몰자 1명 추가 수습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7일 오후 매몰자 1명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26층의 바닥면에 매몰돼 있는 1명의 실종자 구조만을 남겨두고 있다. 〈관련기사 6면〉

7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7분께 27층에서 매몰자를 수습했다. 발견된 지 4시간만이다. 이번에 수습된 피해자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붕괴 건물 27층 2호 라인 거실 외벽 창가로부터 2m 안쪽 부근에서 발견됐다. 26층 바닥면의 매몰자를 구조하는 작업 도중 인명 구조

의 반응이 있었고, 해당 지역의 잔해물을 지우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마지막 1명의 실종자는 26층 바닥 부근에 매몰돼 있고, 이날 5번째로 구조된 실종자의 위치에서 2m가량 거리를 두고 있다. 이에 소방 당국은 기존의 위에서부터 모든 잔해물을 치워나가는 구조 방법을 변경해 확인된 위치까지 직접적으로 파내려 가는 방식으로 변경해 신속한 구조를 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EQS  
THIS IS FOR YOU.

EQS

This is for you.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 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확장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516(수완동)  
소문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603번길 20(소문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영남대로 520(수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S 450+ AMG Line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 3.8 | 도심 : 3.8, 고속도로 : 3.7 | 1회 충전거리(km) : 478,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107.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면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용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명이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